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최영준**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그 의미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4. 연구결과 및 해석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특히 교육 불평등은 사회계층이동 가능성에 한계를 줄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교육평등이라 여겼으나, 점차 교육받을 기회의 제공만으로 교육적 정의와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기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교육 불평등에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대해 조사함으로써 장래 한국사회를 진단해 보고, 우리 사회통합과 소통을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사회계층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수입과 학력이 정비례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능력이 학력과 동일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는 교육결과의 불평등이 제일 크고, 교육과정, 교육기회의 불평등 순으로 불평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무상교육 확대 대책을 제시하였고, 과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 균등화와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 대책을 제안하였으며, 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수준 학교의 국가적 보상과 저수준 학생의 추가수업 대책을 해결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교육 불평등, 인식, 해소, 통합

1. 머리말

오늘날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교육사회학의 접근이론 중 하나인 기능주의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본래적인 능력의 차에서 파생되기 보다는 개인의 주변 환경인 가정의 사회계층의 차로 인한 사회구조적 요인의 격차에서 교육 불평등이 생긴다 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게 되었다.[1] 신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한 경제 분야의 세계화가 전개되어 왔고, 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공동체 내, 공동체 간 경쟁의 극대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앞세운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신자유주의

1) 김병성, 『교육과 사회』, 학지사, 2009, p. 363.

적 사회개혁은 고용성장 없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초현대사회로의 전환으로 전개되어 경제영역 이외의 사회문화 영역의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2)]

한국사회에서의 교육 불평등도 예외는 아니다. 급격한 경제발전 이후 찾아온 국가적 재정위기를 시발로 우리사회도 사회계층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불평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는 사회계층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사회계층 요인이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정도가 다른 요인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3)] 이 결과 우리 사회에서도 실제로 사회계층이나 사회계급에 따라 학업성취에 격차를 나타난다고 보는 교육 양극화, 즉, 교육 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특히 교육 불평등은 사회계층이동 가능성에 한계를 줄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교육이 특정계층의 권력과 권위에 도구가 되고, 소외계층과 빈곤층 등의 사회적 약자가 그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로 대두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신분이 세대를 넘어 재생산되지 않도록 교육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한 세대에서의 차별보다는 앞선 세대의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해 다음 세대가 공정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빈곤과 사회적 약자의 신분을 대물림하게 된다는 사실에 교육 불평등의 심각성이 있다.[4)] 과거 사회의 세습적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계층을 결정하고, 신분을 획득하는

---

2) 유성상,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의 공공성 강화전략.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 『제5차 평생교육정책포럼』, 2010, pp. 105-118.

3) 유한구,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직업과 인력개발』, 2007 여름, 2007, pp. 62-73.

4) 김성식 외, 『경제·사회불평등과 교육격차』, 한국교육개발원, 2007, pp. 15-34.

과정에서 주요 행로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접근기회에서의 불평등, 둘째는 과정에서의 불평등, 셋째는 결과에서의 불평등이다.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교육과정에서도 똑같이 대우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얻게 되는 학업성취까지도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입장이다.[5)]

과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교육 평등이라 여겼으나, 점차 교육받을 기회제공만으로 교육적 정의와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및 대학 높은 진학률을 고려하면 교육의 불평등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실제 학력주의 사회라 불리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으로의 진학은 보편화되고 있다. 대학진학률의 경우 '09년에는 남성이 81.6%, 여성이 82.4%로서 80%가 넘는 학령기 인구가 고등교육을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물론 대학진학률이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11년에도 남성이 70.2%, 여성이 75.2%로서 72%의 넘는 고졸자(검정고시자 포함)가 고등교육을 위해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6)] 어느 덧 우리 한국사회에서 대학생활은 일반적인 통과의례와 같은 교육경험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을 이수했다고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었다고, 결과의 불평등까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에 대

5) 주동범 외, 『교육사회학』, 동문사, 2013. pp. 151-152.
6) 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지표』, 2011. p. 9.

한 조사연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7]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는 찾기 힘들다. 실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특히 교육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등을 분석해 보면 우리사회의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을 보면 향후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기 주역이 될 세대로서 그들이 사회에서의 교육 불평등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미래를 전망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교육 불평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서 장래 한국사회를 진단해 보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학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대학생들은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육 불평등의 해소방안과 대책은 어떠한가?

---

7) 최근 들어 실시된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조사연구로는 단행본으로는 김광억 외,『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2004.를 비롯하여 고형일 외,『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김성식 외,『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 한국교육개발원, 2007., 여유진 외,『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이 있고 논문으로는 최영준,「성인학습자의 교육격차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Andragogy Today』13-4, 2010, pp. 203-226. 등이 있다.

2.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그 의미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계층을 재생산하거나 사회계층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사회계층 재생산과 계층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력과 그 양상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제도에 따라 성별,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하다.[8)]

대부분의 사람이 기능론에 입각하여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으나[9)] 이 열기는 과도한 교육열과 자녀교육의 관심으로 반영되게 된다. 교육이 상호 공정한 경쟁의 룰이 적용된다면, 그 성과는 사회 모두가 공유할 수 있지만, 불공정하고 변칙과 반칙이 허용된다면 양극화가 나타나 사회통합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10)]

갈등론적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Bowles & Gintis(1976)는 교육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자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11)]

만약 갈등론 학자들의 경험적 견해가 우리사회의 사회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교육 불평등 문제에 해당된다면,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평등 실현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학교의 입학 기회평등과 더불어 결과의 평등을 도모해야만 사회통합의 이상을 실현 할 수 있다.

김희삼(2009)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크게 단순화하면

---

8) 조영재 외, 「교육양극화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 『교육종합연구』, 10-2, 2012, pp. 25-44.

9) 김병성, 앞의 책, pp. 151.

10) 최영준, 앞의 책, pp. 205-206.

11) Bowles, S., & Gintis, H.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Y: Basic Books Inc. 1976. pp. 26-36.

비효율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로 구별할 수 있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문제는 비효율보다는 기회, 과정, 성과 면에서의 불평등에 무게를 싣게 된다고 하였다.[12]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화한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권리" 실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은 오직 능력에 따라 평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교육 불평등은 본원적인 개인의 능력 차에서 파생되기보다는 가정의 사회계층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게 되었다.[13]

실증 연구와 자료는 이를 더욱 확연하게 나타내 준다. 김광억 외(2004)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한 연구결과, 거주 지역에 따라 입학률에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입학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14] 한 언론보도[15]는 "한국개발연구원 추적조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명문대 입학률이 높다"면서, 우리사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식에게 세습하고 취약계층의 우수인재에 대한 교육기회를 박탈한다며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16]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1~2013학년도) 서울지역 고교 서울대 합격자 현황에서 정시합격자 187명(일반고등학교 기준) 중 131명이 강남 3구에서 배출되었고, 경제적 우위의 지

12) 김희삼, 「교육격차와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0호, 2009, pp. 39-46.
13) 김병성, 앞의 책, pp. 361-362.
14) 김광억 외, 앞의 책, pp. 87-109.
15)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 추적조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명문대 입학률이 높다」, 2012.11.5. 인터넷판.
16) 유기홍, 유기홍의원실 보도자료, 2013.11.19.

역인 강남 3구 일반고 출신 서울대 정시합격자수는 2011학년도 54.3%, 2012학년도 57.7%, 2013학년도 70.1%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며, 부모의 경제력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입학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보고서[17]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전근대 사회의 신분이나 종파 사이의 불평등을 뛰어넘어 '각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과 고도의 사회 윤리적 목적을 이룩하려는 이상주의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과거의 계층에서 탈피하여 지위 상승을 도모하고 상호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더 나은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역동적인 사회적 운동은 '선진적 사회'와 '후진적 사회'를 갈라놓은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의 교육에 대하여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교육 불평등 등의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싹텄으나 실천이 부진했다며, 사회가 압축적으로 발전을 하였으나 사회와 교육 사이에 발생한 불균형한 문제, 편중문제에서 보이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후 국가적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더불어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보았다.[18]

유한구(2006)는 메타분석으로 우리사회 교육 불평등과 사회계층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19], 사회계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사회계층에 따라 교육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실재 존재한다고 하면서, 교육의 수준과 정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교육의 불평등문제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면 사회의 역동성은 그만큼 줄어들

17) 이기범 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년 정책기획과제, 2006, p. 1-2.

18) 위의 책, pp. 3-29.

19) 유한구,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pp. 93-99.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교육 부분의 불평등은 경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귀결되어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20]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그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설문 조사도구 작성, 조사대상자의 표집, 설문자료 조사, 자료 분석의 과정으로 전개하였다. 설문을 위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설문내용을 4단계와 5단계 평정척도로써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교 대학생(서울 38개, 경기 29개, 충남 12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3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은 전체 188개 중 79개로 42.02%를 차지하였다.[21]

설문조사는 각 대학교별로 20부의 설문지(총 1580부)를 배부하고, 면접조사로써 이루어졌다. 배부된 1580부 중 회수된 620부 39.24%의 면접 조사지 중에서 이중응답 혹은 불성실한 응답 등의 조사지를 제외한 559부를 교육 불평등 인식과 해소방안 인식 조사 분석을 위해 사용하여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 회수율 35.38% (559/1580)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

20) 김성식 외, 앞의 책, pp. 207-218.

21)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3. p. 4.

〈표 1〉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무응답
성별	남학생	253	45.3	
	여학생	306	54.7	
	계	559	100.0	
연령별	19~21세	200	36.0	
	22~24세	204	36.8	
	25세 이상	151	27.2	
	계	555	100.0	4명
계층별	상층	8	1.4	
	중상층	81	14.6	
	중류층	353	63.5	
	중하층	93	16.7	
	하층	21	3.8	
	계	556	100.0	3명

연구대상인 대학생은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45.3%, 여학생이 54.7%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9~21세가 36%, 22~24세가 36.8%, 그리고 25세 이상이 27.2%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층이 1.4%, 중상층이 14.6%, 중류층이 63.5%, 중하층이 16.7%, 하층이 3.8%로 구성되었다. 면접 조사된 설문조사지는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다중비교검정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력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의 학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생에게 학력이 사회계층을 결정하는가를 질의하고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렇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4단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학력과 사회계층 결정에 대한 사회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2.98	.663	0.59	.953	
	여학생	306	2.98	.581			
	계	559	2.98	.619			
연령별	21세 이하a	200	2.89	.579	3.38	.035*	a-c
	22 ~ 24세b	204	2.99	.624			
	25세 이상 c	151	3.07	.650			c-a
	계	555	2.98	.618			
계층별	상층 a	8	3.88	.354	9.01	*** .000	a-b,c,d,e
	중상층 b	81	3.17	.519			b-a,c,d
	중류층 c	353	2.95	.611			c-a,b,d
	중하층 d	93	2.81	.630			d-a,b,c,e
	하층 e	21	3.14	.655			e-a,d
	계	556	2.98	.618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평균 2.98점으로 학력을 사회계층 결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2.89점, 22~24세가 2.99점, 25세 이상이 3.07점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 수로 학력을 사회계층 결정 요인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유의차를 나타냈고, 다중검정을 실시한 결과 21세 이하와 25세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상층은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상층이 3.17점 그리고 의외로 하층이 3.1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류층과 중하층은 2.95점과 2.8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계층이 상층과 하층일수록 학력이 사회계층을 결정한다고 상대적으로 중류층과 중하층보다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중검정 결과는 다소 복잡하게 나타났는데, 상층은 나머지 계층과 5%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차가 있었고, 중상층은 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과 유의차가 있었다. 중류층은 상층, 중상층, 중하층과 유의차를 나타냈다. 중하층은 나머지 계층과 유의차를 나타냈고, 하층은 상층과 중하층과 유의차를 나타냈다. 설문 분석결과,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사회계층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우리 사회에서 수입과 학력은 정비례하는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로서 앞의 〈표 2〉의 설문과 같이 4단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2.92점 여학생이 2.98점으로 평균 2.95점을 나타내고 있어 수입과 학력이 어느 정도 정비례한다고 대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적인 성별 유의차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2.91점, 22~24세가 2.98점, 25세 이상이 2.98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과 학력이 정비례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 연령별 유의차는 없었다. 다중검정 결과에서도 집단 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상층은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계층은 2.94~2.99로 3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분산분석결과 계층별로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지만, 다중검정 결과 상층과 중류층, 상층과 중하층의 집단 간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수입과 학력의 정비례에 대한 사회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2.92	.644	-1.17	.242	
	여학생	306	2.98	.537			
	계	559	2.95	.588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2.91	.517	1.04	.353	
	22 ~ 24세 b	204	2.98	.587			
	25세 이상 c	151	2.98	.678			
	계	555	2.95	.590			
계층별	상층 a	8	3.38	.744	1.18	.317	a-c,d
	중상층 b	81	2.99	.661			
	중류층 c	353	2.94	.561			c-a
	중하층 d	93	2.94	.567			d-a
	하층 e	21	2.95	.741			
	계	556	2.95	.588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수입과 학력이 정비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학생이 속한 가계의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이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능력과 학력을 동일시하는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렇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4단계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2.48점 여학생이 2.50점으로 평균 2.49를 나타내고 있어 능력과 학력을 동일시하는 경우와 동일시하지 않는 경우가 병존하였다. 통계적 성별 유의차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2.49점, 22~24세가 2.50점, 25세 이상이 2.46점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다중검정 결과에서도 집단 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상층은 3.7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계층은 2.43~2.59로 3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 계층별로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났다. 다중검정 결과 상층과 중상층, 상층과 중류층, 상층과 중하층, 상층과 하층의 집단 간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능력과 학력을 동일시하는 사회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2.48	.717	-.245	.807	
	여학생	306	2.50	.684			
	계	559	2.49	.588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2.49	.702	.152	.859	
	22 ~ 24세 b	204	2.50	.639			
	25세 이상 c	151	2.46	.773			
	계	555	2.49	.699			
계층별	상층 a	8	3.75	.463	7.68	*** .000	a-b,c,d,e
	중상층 b	81	2.59	.721			b-a
	중류층 c	353	2.46	.673			c-a
	중하층 d	93	2.43	.597			d-a
	하층 e	21	2.52	1.03			e-a
	계	556	2.49	.699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능력과 학력을 동일시하는 경우와 동일시하지 않는 경우가 혼재해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 본인이 속한 계층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능력과 학력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2)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인식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접근기회에서의 불평등 둘째, 과정에서의 불평등 셋째, 결과에서의 불평등이다. 즉, 교육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과정에서도 똑같이 대우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학업성취까지도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하여 불평등 인식의 "매우 높음"을 5점, "높음"을 4점, "보통"을 3점, "낮음"을 2점, "매우 낮음"을 1점으로 5단계 평정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우리사회 교육기회의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았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3.15점, 여학생이 3.30점으로 여학생이 우리사회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도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3.36점, 22~24세가 3.11점, 25세 이상이 3.21점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도 나타났다. 21세 이하의 대학생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중검정 결과 21세 이하와 22~24세의 대학생간에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층은 3.71점, 상층이 3.50점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계층은 3.17~3.27점 사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분산분석결과 계층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다중검정 결과 하층은 중상층, 중류층 중하층과 각각 집단 간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우리사회에서 학교 또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대학생들은 보통인 3점보다는 약간 상회한 3.22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5〉 교육기회의 불평등 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2	3.15	.914	-2.08	.038*	
	여학생	306	3.30	.772			
	계	558	3.22	.842			
연령별	21세 이하 a	199	3.36	.790	4.30	.014*	a-b
	22 ~ 24세 b	204	3.11	.861			b-a
	25세 이상 c	151	3.21	.869			
	계	554	3.22	.843			
계층별	상층 a	8	3.50	1.31	2.44	.046*	
	중상층 b	81	3.22	.949			b-e
	중류층 c	352	3.17	.824			c-e
	중하층 d	93	3.27	.724			d-e
	하층 e	21	3.71	.717			e-b,c,d
	계	555	3.22	.837			

우리사회 교육과정의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3.28점 여학생이 3.54점으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불평등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성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3.52점, 22~24세가 3.40점, 25세 이상이 3.32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사회의 교육과정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분산분석결과 연령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다중검정 결과에서도 21세 이하와 25세 이상의 집단 간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불평등인식에 대해 하층이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하층이 3.57점으로 나타났다. 중류층이 가장 낮은 3.35점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 계층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다중검정 결과 중류층과 하층, 중류층과 중하층 간에 유의차가 나타났다.

〈표 6〉 교육과정의 불평등 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0	3.28	.878	-3.89	*** .000	
	여학생	306	3.54	.648			
	계	556	3.42	.770			
연령별	21세 이하 a	197	3.52	.659	3.01	.050*	a-c
	22 ~ 24세 b	204	3.40	.839			
	25세 이상 c	151	3.32	.803			c-a
	계	552	3.42	.772			
계층별	상층 a	8	3.50	.926	2.38	.050*	
	중상층 b	81	3.44	.758			
	중류층 c	352	3.35	.785			c-d,e
	중하층 d	93	3.57	.701			d-c
	하층 e	21	3.71	.717			e-c
	계	555	3.42	.771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평등 인식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우리사회의 교육과정에 대해 평균 3.42점으로 보통(3점) 이상으로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교육결과에 대한 불평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3.60점, 여학생이 평균 3.85점으로 여학생이 우리사회의 교육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등 인식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3.81점, 22~24세가 3.70점, 25세 이상이 3.67점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대학생들은 우리사회에서의 교육결과에 대한 불평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산분석결과 연령별 유의차는 없었다. 다중검정 결과도 집단 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층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하층이 3.90점, 중류층이 3.70점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계층이 낮은 중하층과 하층일수록 우리사회의 교육결과에 대한 불평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계층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다중검정 결과 상층과 하층, 중상층과 중하층, 중상층과 하층 집단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표 7〉 교육결과의 불평등 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2	3.60	.849	-3.79	*** .000	
	여학성	306	3.85	.687			
	계	558	3.73	.773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3.81	.712	1.69	.185	
	22 ~ 24세 b	203	3.70	.823			
	25세 이상 c	151	3.67	.789			
	계	554	3.73	.776			
계층별	상층 a	8	3.69	.756	3.21	.013*	a-e
	중상층 b	81	3.56	.806			b-d,e
	중류층 c	352	3.70	.790			
	중하층 d	93	3.90	.660			d-b
	하층 e	21	4.00	.707			e-a,b
	계	555	3.73	.775			

우리사회의 교육결과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평균 3.73점을 나타내어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 평균 3.22점, 교육과정에 대한 불평등 평균 3.42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교육 결과에서의 불평등이 교육시설 이나 교사의 질, 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 불평등과 교육접근 기회의 불평등보다도 높다고 인식하였다.

3) 교육 불평등의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연구결과 역시 교육 불평등을 보는 관점에 따른 해결책으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방안,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성별격차 폐지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과 저소득층과 낙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무상교육 확대가 주된 해소방안으로 제시되었다.[22)]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으로는 낙후지역 학교 등의 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균등화, 학교들 간 교사들의 동질수준 확보 및 교원격차 해소, 특목고 폐지와 평준화 확대를 통한 불평등 해소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23)]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학교의 국가 지원,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 폐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추가 수업 등을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이 제시되었다.[24)]

---

22) 교육기회의 해소방안으로 성별격차 폐지와 저소득층,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무상교육확대을 제시된 문헌으로는 고형일 외, 앞의 책과 김재인 외, 『여성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9. pp. 54-55., 강영혜 외,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4. 그리고 남궁지영・우명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11. 등이 있다.

23) 교육과정의 해소방안으로 시설투자의 균등화,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 평준화 확대 등을 제시한 연구로는 고형일 외, 앞의 책과 성열관 외,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확대 방안 및 법안』,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5. pp. 51-54. 그리고 이동직, 『고교 평준화 정책과 과열 과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등이 있다.

24) 교육결과 불평등의 해소방안으로 학력수준의 임금격차 폐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추가수업 등을 제시한 문헌으로는 김성식 외, 앞의 책과 김흥원, 「교육안전망지원센터 '07년 추진실적 및 '08년 추진계획(안)」, 교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 해결의 대안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해소방안의 적절성 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매우 적절”을 5점, “적절”을 4점, “보통”을 3점, “부적절”을 2점, “매우 부적절”을 1점으로 5단계 평정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김재인 외(2009)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성별격차 폐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제안하였다.[25]

강영혜 외(2004)와 남궁지영・우명숙(2011)은 저소득계층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무상교육 확대로써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제안하였다.[26][27]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별의 격차해소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남성선호의 유교적 사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 접근기회가 적었던 여성을 배려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다.[28]

〈표 8〉은 대학생들이 우리사회에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성에 따른 격차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96점으로 여학생의 평균 2.80점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남녀 모두 성별격차 폐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방안을 보통(3점) 이하로 나타내었다.

육격차해소전문위원회의 자료집』, 2007. 여유진 외 앞의 책, 그리고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체제 현황과 과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2008, pp. 3-28. 등이 있다.

25) 김재인 외, 앞의 책, pp. 54-55.

26) 강영혜 외, 앞의 책, pp. 173-177.

27) 남궁지영・우명숙, 앞의 책, pp. 73-77.

28) 김재인 외, 앞의 책, pp. 37-51.

〈표 8〉 성별격차 폐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2.96	1.03	1.83	.068	
	여학생	302	2.80	.928			
	계	555	2.88	.977			
연령별	21세 이하 a	198	2.89	.922	.848	.429	
	22 ~ 24세 b	204	2.82	.961			
	25세 이상 c	149	2.96	1.05			
	계	551	2.88	.973			
계층별	상층 a	8	2.87	1.88	2.03	.088	
	중상층 b	81	3.07	1.01			b-d
	중류층 c	349	2.89	.948			c-d
	중하층 d	93	2.66	.927			d-b,c
	하층 e	21	2.86	1.06			
	계	552	2.88	.979			

성별 통계적 유의차도 없었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2.89점, 22~24세가 2.82점, 25세 이상이 2.96점으로 성별격차 폐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보통이하로 평가하고 있었다. 분산분석결과 연령별 유의차는 없었다. 다중검정 결과도 집단 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상층만 3.07점으로 보통이상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계층은 보통(3점) 미만이었다. 분산분석 결과 계층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검정 결과 중상층과 중하층, 중류층과 중하층 집단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성별격차 폐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대책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전체 평균 2.87~2.88점을 나타내어 적절한 불평등 해소대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과거의 유교적 성별차별을 대학생들이 더 이상 교육 분야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실제 2009년 대학교 진학률은 보면 여학생의 비율 82.4%로 남

학생의 비율 81.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9]

교육기회의 불평등 대안으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저소득층과 낙후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등 무상교육의 확대이다.[30] 대학생들이 우리사회에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표 9〉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3.71점 여학생이 3.78점으로 남녀 학생 모두에서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지원하고 있었다. 통계적 성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3.74점, 22~24세가 3.74점, 25세 이상이 3.79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으나, 분산분석결과 연령별 유의차는 없었다. 다중검정 결과도 집단 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층이 4.05점, 중하층이 3.72점, 중류층이 3.76점으로 중류층 이하가 상대적으로 상층과 중상층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 계층별 유의차는 없었다. 다만, 다중검정 결과 상층과 하층 간에 유의차가 나타났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전체 평균 3.74~3.75점을 나타내어 성별격차 폐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대책보다 우수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고형일 외(2005)는 낙후지역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균등화, 그리고 교원근무여건 개선으로 교사의 동질 수준 확보 대책을 제시하였다.[31] 성열관 외(2005)도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학교시설 격차 해소 및 교원격차 해소 등의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대책을 제시하고 법과 조례로

29) 통계청, 앞의 책, p. 9.
30) 고형일 외, 앞의 책, pp. 28-53.
31) 위의 책, pp. 66-67.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32] 또한, 평준화를 통해 이념적 갈등과 평등성을 담보하자는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 방안도 제안되었다.[33]

〈표 9〉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1	3.71	.893	-.814	.416	
	여학생	300	3.78	.929			
	계	551	3.75	.912			
연령별	21세 이하 a	198	3.74	.912	.158	.854	
	22 ~ 24세 b	202	3.74	.906			
	25세 이상 c	147	3.79	.916			
	계	547	3.75	.910			
계층별	상층 a	8	3.12	1.81	1.64	.163	a-e
	중상층 b	79	3.68	.885			
	중류층 c	347	3.76	.914			
	중하층 d	93	3.72	.864			
	하층 e	21	4.05	.669			e-a
	계	548	3.74	.913			

대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교육과정에 대한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낙후지역 학교 등의 교육시설 균등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평균 3.84점, 여학생이 평균 3.80을 나타내어 남학생이 교육시설 균등화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를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32) 성열관 외, 앞의 책, pp. 51-54.
33) 이동직, 앞의 책, pp. 16-18.

〈표 10〉 교육시설의 균등화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3.84	.865	.476	.635	
	여학생	304	3.80	.879			
	계	557	3.82	.872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3.74	.864	2.07	.128	a-c
	22 ~ 24세 b	204	3.84	.874			
	25세 이상 c	149	3.93	.823			c-a
	계	553	3.83	.858			
계층별	상층 a	8	3.38		2.81	.025*	a-c,e
	중상층 b	81	3.72				
	중류층 c	351	3.89				c-a,d
	중하층 d	93	3.65				d-c,e
	하층 e	21	4.09				e-a,d
	계	554	3.82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3.74점, 22~24세가 3.84점, 25세 이 상이 3.93점을 나타내어 대학생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후지역 학교 등의 교육시설 균등화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 연령별 유의차는 없었으나 다중검정결과 21세 이하와 25세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차가 있었다. 계층별로 보면, 하층이 4.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층이 3.38점으로 가장 낮았다. 분산분석결과 대학생의 계층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 다중검정결과 상층과 중류층, 상층과 하층, 중류층과 중하층, 중하층과 하층 집단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

우수 학생의 발굴과 교사의 수월성 등을 너무 강조하여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특목고 등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확대해서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4] 특목고 폐지와 평준화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우리 대학생들은 인식은 〈표 11〉과 같았다.

〈표 11〉 특목고 폐지, 평준화 확대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3.26	.990	2.507	.012*	
	여학생	304	3.05	.960			
	계	557	3.15	.978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3.16	.919	4.09	.017*	
	22 ~ 24세 b	204	3.02	1.01			b-c
	25세 이상 c	149	3.32	.975			c-b
	계	553	3.15	.972			
계층별	상층 a	8	3.13	1.46	.512	.727	
	중상층 b	81	3.08	1.21			
	중류층 c	351	3.15	.937			
	중하층 d	93	3.15	.884			
	하층 e	21	3.43	.870			
	계	554	3.15	.977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3.26점 여학생이 3.05점으로 나타내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특목고 폐지와 평준화 확대를 우리나라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더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1세 이하가 3.16점, 22~24세가 3.02점, 25세 이상이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다중검정 결과에서도 22~24세 집단과 25세 이상 집단 간에 유의차가 있었다. 다중검정결과도 대학생이 속한 계층별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대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계층과 무관하게 특목고 폐지와 평준화

34) 이동직, 앞의 책, pp. 16-18.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성과 연령에 따라서는 특목고 폐지와 평준화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의 적절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특목고 폐지와 평준화 확대 보다는 교육시설 균등화를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을 교육시키는 교사수준이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교사의 수준격차 해소와 동질수준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도 여러 연구[35]에서 제안이 되었다.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평균 3.61점, 여학생이 평균 3.43점을 나타내어 남학생이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를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통계적 유의차도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3.49점, 22~24세가 3.55점, 25세 이상이 3.52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에 연령별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다중검정결과에서도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계층별로 보면, 중하층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층이 3.13점으로 가장 낮았다. 분산분석결과 대학생의 계층별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다중검정결과에서도 계층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대학생들은 교사의 동질성 확보를 교육시설의 균등화 보다 낮게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특목고 폐지와 평준화 확대보다는 높게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35)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를 제시한 연구는 고형일 외, 앞의 책과 김흥원, 앞의 책, 그리고 성열관 외, 앞의 책 등이 있다.

〈표 12〉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3.61	1.01	2.186	.029*	
	여학생	304	3.43	.917			
	계	557	3.52	.963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3.49	.951	.259	.772	
	22 ~ 24세 b	204	3.55	.979			
	25세 이상 c	149	3.52	.956			
	계	553	3.52	.961			
계층별	상층 a	8	3.13	1.13	1.29	.273	
	중상층 b	81	3.42	1.02			
	중류층 c	351	3.51	.962			
	중하층 d	93	3.68	.874			
	하층 e	21	3.38	1.07			
	계	554	3.52	.964			

셋째,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저수준 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보상적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 대책이 제시되었고[36] 여유진 외(2007)은 농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저수준 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선발에 배제되지 않토록 구체적으로 특별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 보상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37] 김성식 외(2007)는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의 폐지를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제안하였다.[38] 김홍원(2007)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추가 수업으로 방과후 수업 등을 제시하는 등 교육안전망을 구축을 통한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정책을 제안하였다.[39]

우리사회의 교육결과에 대한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저수준의

36) 고형일 외, 앞의 책, pp. 64-69.
37) 여유진 외, 앞의 책, pp. 224-225.
38) 김성식 외, 앞의 책, pp. 68-86.
39) 김홍원, 앞의 책, pp. 57-79.

학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적 지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13〉 저수준 학교 국가 보상 지원의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3.90	.860	2.073	.039*	
	여학생	302	3.75	.903			
	계	555	3.82	.886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3.75	.861	5.00	** .007	a-c
	22 ~ 24세 b	204	3.74	.922			b-c
	25세 이상 c	147	4.01	.820			c-a,b
	계	551	3.82	.880			
계층별	상층 a	8	3.63	1.19	.352	.843	
	중상층 b	79	3.73	1.03			
	중류층 c	351	3.84	.856			
	중하층 d	93	3.82	.820			
	하층 e	21	3.90	.995			
	계	552	3.82	.886			

대학생들의 계층별 저수준 학교에 대한 국가적 보상지원을 통한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인식의 차이를 보면, 하층이 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층이 3.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계층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은 저수준 학교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교육결과 불평등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평균점수도 3.8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표 14〉 학력수준 임금격차 폐지 통한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3.30	1.04	.191	.849	
	여학생	304	3.30	.964			
	계	557	3.30	.996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3.39	.970	.997	.370	
	22 ~ 24세 b	204	3.25	1.04			
	25세 이상 c	149	3.27	.977			
	계	553	3.31	.999			
계층별	상층 a	8	3.75	.886	1.04	.384	
	중상층 b	81	3.46	1.17			
	중류층 c	351	3.27	1.01			
	중하층 d	93	3.26	.736			
	하층 e	21	3.24	1.14			
	계	554	3.30	.998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평균 3.30점을 나타내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성별 유의차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21세 이하가 3.39점, 22~24세가 3.25점, 25세 이상이 3.27점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결과, 연령별로도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계층별로 보면 상층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하층이 3.24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계층이 낮을수록 점수가 낮았다. 대학생이 속한 계층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학력수준 임금격차 폐지가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의 대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다. 하지만 분산분석결과, 계층별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검정결과도 대학생이 속한 계층별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교육결과의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사회에서의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폐지 대책을 대학생들은 보통(3점) 수준을 약간 상회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교육결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학력수준의 임금격차 폐지 방안보다 저수준 학교의 국가적 보상 방안을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업 성취도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수업을 통한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방안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40] 〈표 15〉는 교육결과의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저수준 학생에게 추가수업 실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3.77점, 여학생이 3.73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성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21세 이하가 3.67점, 22~24세가 3.86점, 25세 이상이 3.73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분산분석결과 연령별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다중검사결과, 21세 이하집단과 22~24세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대학생이 속한 계층별로 보면, 중상층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하층이 3.65점으로 가장 낮았다. 분산분석결과,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다중검정결과에서 중상층과 중류층 간, 중상층과 중하층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대학생들은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추가수업도 교육결과 불평등을 위해 적절한 방안(전체 평균 3.75~3.76)으로 인식하였는데, 소득계층이 밀접한 지역, 농촌지역의 저수준 학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방안(전체 평균 3.82)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학력수준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전체 평균 3.30~3.31)보다는 더 높은 적절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40)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방과후학교를 제안한 연구로는 김연석,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2008, pp. 29-47.과 남궁지영·우명숙, 앞의 책. 등이 있다.

〈표 15〉 저수준 학생 추가수업을 통한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3.77	.882	.611	.542	
	여학생	304	3.73	.832			
	계	557	3.75	.855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3.67	.797	2.79	.062	a-b
	22 ~ 24세 b	204	3.86	.888			b-a
	25세 이상 c	149	3.73	.875			
	계	553	3.76	.856			
계층별	상층 a	8	3.88	.835	2.28	.059	
	중상층 b	81	4.00	.922			b-c,d
	중류층 c	351	3.72	.841			c-b
	중하층 d	93	3.65	.816			d-b
	하층 e	21	3.76	.944			
	계	554	3.75	.857			

학교교육에 비판과 불만을 제기한 갈등주의자들의 주장과 가속적인 사회변화에 대응과 사회정의 실현이란 의미에서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평생교육과 원격교육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41] 대학생들은 학교교육과 같은 정규교육 외의 평생교육을 교육결과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16〉과 같이 나타났다.

41)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평생교육(원격교육 포함)을 제안한 연구로는 김양자, 「미래가 지향하는 교육평등」, 『교육종합연구』, 1-1, 2003, pp. 1-15. 와 고병헌,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대안적 평생교육 방안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1-1, 2005, pp. 145-173., 김두섭,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방안」, 『교육격차해소전문위원회의자료집』, 2007, pp. 35-55., 김병성, 앞의 책, 그리고 조영재 외, 「교육양극화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 『교육종합연구』, 10-2, 2012, pp. 25-44. 등이 있다.

〈표 16〉 정규교육 외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F	p	다중검정
성별	남학생	253	3.77	.855	.165	.869	
	여학생	304	3.77	.790			
	계	557	3.77	.819			
연령별	21세 이하 a	200	3.69	.824	4.65	.010*	a-b
	22 ~ 24세 b	204	3.91	.820			b-a,c
	25세 이상 c	149	3.70	.793			c-b
	계	553	3.77	.819			
계층별	상층 a	8	3.37	.916	2.30	.058	a-b,e
	중상층 b	81	3.88	.871			b-a,d
	중류층 c	351	3.78	.826			
	중하층 d	93	3.61	.708			d-b,e
	하층 e	21	4.05	.805			e-a,d
	계	554	3.77	.818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평균 3.77점을 나타내어 보통(3점) 이상의 적절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2~24세가 3.91점으로 가장 높았고, 21세 이하가 3.6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 연령별 유의차가 있었는데, 다중검정결과 21세 이하 집단과 22~24세 집단 간, 22~24세 집단과 25세 이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들은 신입과 졸업 시기가 아닌 재학 시기에 평생교육을 교육결과의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계층별로도 하층이 4.05점으로, 상층이 3.37점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 계층별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다중검정결과, 상층과 하층, 상층과 중상층, 중상층과 중하층, 중하층과 하층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상층에 속한 대학생들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차기주역으로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장래의 한국사회를 진단해 보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시절,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도 교육의 평등이라 여겼지만, 점차 교육기회 외에 교육과정과 교육결과도 평등하게 되었을 때, 교육의 불평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육 불평등은 사회계층의 이동 가능성에 한계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된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한국사회에서는 학력을 사회계층 결정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개인의 수입은 학력과 정비례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능력을 학력과 동일시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과정 불평등, 교육결과의 불평등 등과 관련해서, 대학생들은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이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그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의 순으로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에게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결과, 교육기회 불평등의 해소 방안으로 무상교육의 확대 대책을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대한 차별 폐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방안은 적절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대학생들은 한국사회에서 성별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교육시설의 균등화 대책과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 대책을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특목고 폐지와 평준화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불평등 해소 방안은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한국사회의 하향 평준화 등

을 우려하고, 해소방안 대비 불평등 해소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는 낮은 수준의 학교에 대한 국가적 보상 대책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추가수업 대책을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교육 과정외의 평생교육의 강화 대책을 통한 교육결과의 불평등 해소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 차별폐지를 교육결과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제도 개선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교육 불평등 인식과 해소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포함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 주의해야 한다.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인식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계층의 이동 가능성이 교육 불평등에 의해 한정된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 간의 통합은 기대하기 힘들다.

둘째, 대학생들의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신이 속한 계층과 실제 월평균 가계수입 간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주의해서 대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미래의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그 적절성을 높게 인식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수능'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입시 제도를 경험한 세대로서 우리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비롯한 교육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학생들도 교육결과의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인식한 학교교육 외의 평생교육과 원격교육의 활용은 본격화된 평생학습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감소시키

고, 국가예산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 추적조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명문대 입학률이 높다」, 2012.11.5. 인터넷판.

유기홍, 유기홍의원실 보도자료, 2013.11.19.

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지표』,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3.

2. 논문

고병헌,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대안적 평생교육 방안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1-1, 2005, pp. 145-173.

김경근,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5, pp. 723-747.

김두섭,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방안」, 『교육격차해소전문위원회의자료집』,2007, pp. 35-55.

김양자, 「미래가 지향하는 교육평등」,『교육종합연구』, 1-1, 2003, pp. 1-15.

김연석,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2008, pp. 29-47.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체제 현황과 과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전문가 포럼』, 2008, pp. 3-28.

김흥원, 「교육안전망지원센터 '07년 추진실적 및 '08년 추진계획(안)」, 『교육격차해소전문위원회의 자료집』, 2007, pp. 57-79.

김희삼, 「교육격차와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0호, 2009, pp. 39-46.

유성상,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의 공공성 강화전략.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 『제5차 평생교육정책포럼』, 2010, pp. 105-118.

유한구,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직업과 인력개발』, 2007 여름, 2007, pp. 62-73.
조영재 외, 「교육양극화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 『교육종합연구』, 10-2, 2012, pp. 25-44.
최영준, 「성인학습자의 교육격차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13-4, 2010, pp. 203-226.
한예원, 「동아시아 세계의 '지'의 지형도: 유교적 '교육' 체계론과 근대적 '실천지'」, 『인문연구』 69호, 2013, pp. 37-68.

3. 단행본
강영혜 외,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4.
고형일 외,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김광억 외,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2004.
김성식 외, 『경제·사회불평등과 교육격차』, 한국교육개발원, 2007.
김병성, 『교육과 사회』, 학지사, 2009.
김재인 외, 『여성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9.
남궁지영·우명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11.
박병영 외,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Ⅳ)』, 한국교육개발원, 2011.
성열관 외,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확대 방안 및 법안』,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 2005.
여유진 외,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유한구,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이기범 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년 정책기획과제, 2006.
이동직, 『고교 평준화 정책과 과열 과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주동범 외, 『교육사회학』, 동문사, 2013.
Bowles, S., & Gintis, H.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Inc.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Undergraduate Student's Recognition of th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Korea

Choi, Young-Joon

The educational inequality is important in Korea, because it restricted the possibility of social class mobility. In the past, the educational equality signified that all the people of our country received equally an education but it had to include an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a course of study and a result of education in the present. This study tried to diagnose the korean society in future and to seek ways for resolving educational inequality by investigating educational inequality that the undergraduate in our society might be felt. As a result, they were very sympathetic to that an educational background was the main factor to determine the social class in our society and an income is in direct proportion to educational background. However, the undergraduate in our society understood that the educational equality was arranged in the order of a result of education, a course of study and an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They proposed a free educational expansion for a solution to inequal opportunity as the resolution method for educational inequality and suggested the equaliz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equalization of teacher's skill as the resolution method for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course and thought the national compensation for low-level school and the extra class for low-level student as the resolution method for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result. Also, the lifelong education and distance education was understood as the resolution method for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result.

Key words: undergraduate, educational inequality, recognition, resolution, integration.

최영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직교과 교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인문과학관 241호
전화번호: 041-550-1575
전자우편: d333300@dankook.ac.kr

이 논문은 2014년 7월 3일 투고하여
2014년 8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8월 18일 게재 확정함.